축복 앞에서,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라 (2023년 6월 4일 주일 설교) 🥫 제 23주 여호수아 22:10-34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관계가 엉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이 갈등을 잘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낸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정복과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자신들의 땅으로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갈등이 요단 동편 지파와 나머지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렵지만 이 엉킨 관계를 풀기로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냅니다.(33절)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엉킨 관계를 풀어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오해의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관계가 오해 때문에 엉키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해는 성급한 판단과 나의 주관적 확신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동편 지파를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했을까요? 동편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관적으로 추측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10-12절)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13-14절) 진상을 파악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당사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성급하게 판단했을 때 반드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면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들은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대화를 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오해라면, 관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진상 조사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이 21절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신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엉킨 관계 속에서 이 이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행한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속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인 34절 말씀에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들이 쌓은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엣이라는 말은 '증거'란 뜻입니다. 이 제단을 엣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일으켰던 제단을 여호와가 우리의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성소에 있던 번제단과 같은 모양입니다.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고 피흘림이 있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소 곳곳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풀려고 할수록 더욱 엉키는 관계가 있다면 그 때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분노와 증오, 상처를 해결하고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암송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이번 주 성경 통독

독

6/5(월)	6/6(화)	6/7(수)	6/8(목)	6/9(글)	6/10(토)	6/11(주일)
∟ 1-3	느4-7	∟ 8-9	└ 10-12	느13,에1-2	에3-6	에7-9

QT

이번 주 QT 말씀

6/5(월) 6/6(화) 6/7(수) 6/8(목) 6/9(금) 6/10(토) 6/11(주일) 애1:12-17 애1:18-22 애2:1-10 애2:11-17 애2:18-22 애3:1-18 애3:19-3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의 삶속에 엉킨 관계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3. 엉킨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것을 나누어 주세요.